

[강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시아 지방정부의 역할¹

장영민 프로그램 부장, 현재유 프로그램 담당관 communication@citynet-ap.org
시티넷

회의 개요

- 일시 : 2016년 6월 8~10일
- 장소 : 서울시청 8층
- 행사명 : 제 1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 주최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시티넷(CITYNET), 서울시

세션별 회의노트 작성

- 시티넷 프로그램 담당관 하이메 파올로 모라
- 시티넷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희수
- 시티넷 프로그램 컨설턴트 스테이시 카마이클
- 시티넷 프로그램 인턴 조지영

그림1 '제1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행사 개최 전경



2015년 9월 25일 개최된 UN 총회에서 193개 UN 회원국은 도시와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11번째 목표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했다. 또한 2016년 10월 주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인 '해비타트(Habitat) III'가 20년 만에 신(新)도시 의제의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논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협력과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간 국제기구인 시티넷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 Economy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이하 UN ESCAP), 서울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다.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1회 SDGs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도시 문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SDGs의 타당성과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SDGs의 11번째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

제 1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2016년 6월 8~10일) 회의 결과 요약 정리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관심 재조명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SDGs 이행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각 도시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athan) 시티넷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SDGs를 실행해야 할 목표(Goals)에서 실행이 완료된 결과물(Outputs)로 발전시키려면 아·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의 도시발전 경험은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의 경험과는 다르므로 아시아 태평양의 도시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사례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시티넷 특별자문관이자 전 필리핀 산페르난도 시장 메리 제인 오르테가(Mary Jane Ortega)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SDGs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빈곤 해소, 복지 개선, 양성 평등 개선, 교육 향상 등 사람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SDGs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력과 파트너십이며, 세계는 이를 통하여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SDGs의 아름다운 비전이 다양한 도시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희

그림2 개회사 중인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athan) 시티넷 사무총장



망하였다. 그리고 오르테가 전 시장은 SDGs를 지역 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SDGs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우수사례 공유

다양한 세션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지속가능 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다양한 지속가능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과 우수사례를 담고 있는 '시티보이스시스(CityVoices)' 런칭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시티넷의 정규 간행물 '시티보이스시스'의 특별판인 '지속가능 도시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우수사례'는 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24인의 선구적인 아시아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현 아시아 국가들의 체제 변화, 정책 변화, 도시화로 인한 현상과 그 영향을 담고 있다.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시티보이스시스' 특별판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와 같은 수많은 국제 공약들이 형성한 담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적 전략을 벗어난 새로운 모델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도시 모델은 경제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요소들도 고려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를 이어 '시티보이스시스' 매거진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 각 발표자들이 사례를 소개하고 청중들은 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르테가 시티넷 특별자문관은 과거 필리핀 산페르난도시의 시장이었을 당시 고품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제일 큰 난제 가운데 하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어디에 쓰레기를 매립하느냐로, 오르테가 전임 시장은 처음에 공학적으로 설계된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했다. 전임 시장은 “처음에는 이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히며,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재무부를 통해 설계·건축·경영 동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공학적 쓰레기 매립지가 지어졌고, 사용기한은 약 15년으로 예측되었다. 오르테가 전임 시장은 고품 폐기물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공학적 쓰레기 매립지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매립지 건설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4R-재사용(reuse), 폐기물 감축(reduce), 재활용(recycle)과 플라스틱 사용 거부(refuse to use plastic)-을 홍보했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5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다토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Dato' Maimunah Mohd Sharif) 세베랑페라이 시장은 세베랑페라이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세베랑페라이 시장에게는 90만 명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과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요청에 따른 답변 진행상황 등을 추적하며, 지금까지 9,732건의 요청 중 9,551건이 해결되었다. 마이무나 시장은 이 시스템이 시에게 89%의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고(2015년 결과) 시민고충 처리비용 감소 등을 비롯한 여러 이득을 주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나오키 오토모(Naoki Otomo) 요코하마 시 건축국 주택재생과장은 요코하마시의 인구 변화를

예로 들며, 2019년까지 시 인구가 역대 최고인 374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후에는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2060년에는 32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지속적인 도시를 위해 노인들이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젊은 인구들의 유지 및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코하마시는 고령화와 감소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 인구의 다양한 생활방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적 교환, 보건, 육아, 교통 환경, 재난 경감,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들을 합친 도시근교 개발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의 개선이 실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데 현재 ICT와 연결하여 노인복지시설과 기타 거주환경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전 서울시 부시장 김상범 교수는 서울시에서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섬을 생태공원으로 재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던 난지도는 심각한 악취와 붕괴의 위협에 처하게 되어 거의 죽은 땅이나 다름없었던 만큼, 복원하는 데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2,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복원 초기에는 난지도 인근에 거주하는 950세대의 저항에 부딪쳤고, 공사 중에는 폭우 피해로 17개의 비탈면들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주최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난지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강한 동기가 부여되었고, 난지생태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후로 다양한 동식물들을 섬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현재 난지도의 일부에는 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서울 시민들은 가볼 만한 지역명소로 난지도를 꼽고 있다.

도노반 스토리(Donovan Storey)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속적도시개발부장은 2015년을 향

후 15년간의 개발 노력을 좌우할 수많은 국제적 공약, 목표, 계획들이 채택되었던 의미 있는 해라고 하였다. 스토리 부장은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국제공약들을 지역적으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속개발목표의 경우 3분의 2 정도 지방정부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유엔의 제일 큰 난관은 국제정책들과 지방정부들의 활동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이끌 도시들의 역할에 점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도시 계획들은 중소도시들의 번영에 중점을 둘 것이며, 아시아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 J. M 무자밀(Muzammil) 콜롬보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와 시티넷이 만들어갈 SDGs 지식 플랫폼이 도시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험들을 축적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경험 정보를 통해 환경 친화성, 안전성, 시민 참여도 등 지속적인 도시들의 조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도시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마리벨 사센돈실로(Marivel Sacendon-cillo) 필리핀 지방정부아카데미 이사는 아시아가 유독 유대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발표자들에게 도시개발 과정에서 특히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유대관계의 특성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은 아시아에서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시아의 도시화라는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서양의 도시화 모델이 아시

아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서울의 발전 초기단계를 예로 들며, 서울은 전체적인 지역 사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수 집단들의 사회적 활성화에 집중했다고 하였다.

미래 도시이슈와 공동협력 방안

이후 세션에서는 환경, 전자정부, 안전,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 미래 도시의 이슈 및 도시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알아보았다. 그 중 안전도시 세션에서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적 관점에서 안전도시를 바라보고 관련 우수 사례들을 논의하였다. ‘유엔해비타트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정부 내 다차원적, 다부문적 접근을 통해 도시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도시들의 거주성을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세션 사회자인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프로그램 대표자 주마 아시아고(Juma Assiago)는 SDGs 채택 직후 유엔해비타트의 활동 및 향후 SDGs의 이행에서 도시들과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션을 시작하였다. 그는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단이며, 도시화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도시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 점은 도시발전에 연관된 11번째 목표가 홀로가 아닌 평화, 안전 그리고 통치 관련 16번째 목표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세션 발표자인 비마 아르야 수기아토(Bima Arya Sugiarto) 보고르 시장은 원래 약 20만 명 인구를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된 도시였던 보고르시가 이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문화

그림3 안전도시 세션에서 발표 중인 비마 아르야 수기아토 (Bima Arya Sugiarto) 보고르 시장



유산 도시, 스마트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도시를 통합시킬 수 있었다고 수기아토 시장은 설명했다. 한 예로, 작년 한 해 동안 보고르시에 15개의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정원 수 200개를 심었다. 이것은 미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녹지 확충,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를 지닌다. 그 중 한 공원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래피티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하여 시의 공공기물 파손율을 낮추었다. 수기아토 시장은 보고르 시민 간에 사회적인 화합의식을 심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e Love Bogor' 캠페인을 세계자연보호기금의 'We Love Cities' 운동에 비유하며 보고르시의 성공적인 결과를 희망하였다.

메리 제인 오르테가 시장(시티넷 특별자문관)은 산페르난도시의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들에 더 집중하였다. 오르테가 시장은 공공장소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곳이라는 정의와 더불어, 수기아토 시장의 녹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견해에

동조를 표했다.

서울시 디자인 개발팀 강효진 팀장은 국내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CPTED)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성이 증진된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강 팀장은 염리동 '소금길' 과 공진중학교 '드림업'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비록 벽을 다시 칠하거나 학내 사각지대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의 비교적 저예산 방안들이지만 협동디자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UN ESCAP, 시티넷, 서울시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도시 간 협력에 관련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도노반 스토리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속적도시개발부장과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유희숙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구축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서울시 그리고 시티넷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플랫폼으로 문제가 있는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의 우수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정책들을 보유한 도시들에게는 문제 해결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해결책들은 문제가 있는 도시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것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시들에게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도시들이 정책 적용 후 남기는 피드백은 해당 정책의 장소 불문한 적용 가능성 평가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이 IT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소통, 정책 공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SDGs 지식 플랫폼은 관련 도시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도울 것이며,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도시들의 기여를 필요로 한다.

포럼의 마지막에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길

라파르티 라마크리시나(Kilaparti Ramakrishna)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은 각 공동주최기관들을 대표하여 포럼 결과문 ‘SDGs를 위한 도시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결과문은 포럼이 이끌어낸 다섯 개의 주요 결론들을 담고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권
2. 시민참여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
3.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스마트 계획
4. 목표이행을 촉진하는 다층식 협력 관계
5. 도시들 간의 지식 공유

서울시 공식 성명은 “그 어떠한 사람이나 도시도 결코 도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렬한 문구로 마무리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포용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시사점

이번 ‘SDGs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SDGs의 타당성과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SDGs의 11번째 목표인 도시와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을 위하여 다각적인 협력과 공유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포럼이었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도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엔해비타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파트너들과 SDGs에 대한 다양한 세션들을 연계하여 많은 참가자들과 도시의 우수사례 및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특히 UN ESCAP, 도시, 도시네트워크가 합심하여 SDGs를 위한 아시아의 관점을 함께 의

논하고 곧 개최 예정인 ‘Habitat III’에서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티넷은 UN ESCAP, 서울시와 함께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주로 도시들의 SDGs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이니셔티브 소개 정보를 담은 이 플랫폼은 ‘Habitat III 사이드 이벤트’에서 런칭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 관계자들의 참여를 넓히고 다양한 도시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분야의 도시문제를 서로 공유하여, 이에 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울의 SDGs 발전척도 평가체계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lcwsdi@si.re.kr

서울시는 2015년 4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 12개 전략과 28개 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현황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 분야 10개, 사회문화 분야 10개, 경제 분야 10개 등 총 3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가방법으로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1 참조). 수레바퀴 모델에서 원둘레의 점선부분은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를 나타낸다. 바퀴살의 끝부분은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현재의 달성도 (2013년 현황)를 나타낸다. 목표 달성도는 ((현황연도-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30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각각의 달성도는 비율로 표시 가능하다.

30개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각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레바퀴 모델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각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해당되는 관련 데이터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송부하면 위원회는 각 지표의 산출식에 따라 분석하여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한다. 이후 모델 적용 결과를 검토하여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에 자리매김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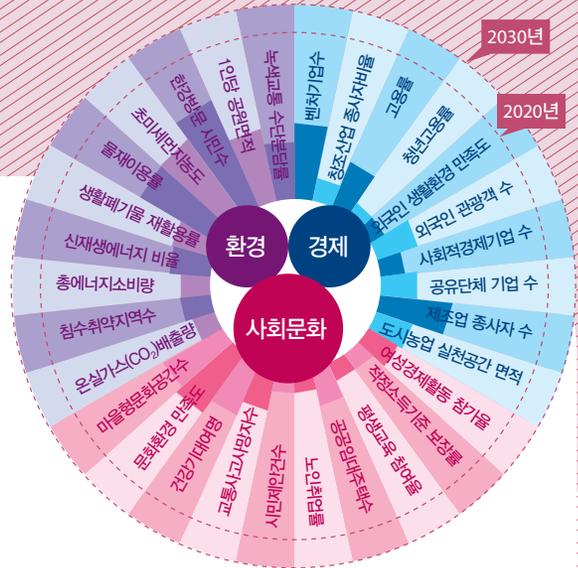


그림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모델

평가결과를 다시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피드백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위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위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하고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는 별도의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UN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한 후 서울형 SDGs를 개발하는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 학술용역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의 과제 중에서 UN SDGs 17개 목표와 168개 세부목표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SDGs를 서울시 시정 전반에 주류화하는 한편, 25개 자치구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형 SDGs의 달성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